

韓 성장률 OECD 7위 5분기 만에 日 넘어서 저성장 탈출은 ‘아직’

2분기 GDP 0.7% 상승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았다. 한국은 일본 수치도 넘어섰는데 이 역시 5분기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직전 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탓에 아직 회복 국면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와 비교해 0.7% 증가했다. 37개국(38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미발표) 가운데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2분기 OECD 37개국 평균 0.4% 1차추경 집행, 2분기 반등 이끌어

1분기 -0.2% 기저효과도 반영 2차추경 투입 등 3분기도 기대

지난 2분기 37개국 평균은 +0.4%였고 일본 GDP는 0.5% 늘었다. 한국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OECD 평균과 일본 성장률에 못 미쳤다. 국내 민간소비·투자 위축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된 영향이다.

그러다 올해 2분기 들어 크게 반등하며 OECD 및 일본 수치를 5개 분기 만에 상회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0.8%)에는 다시 또 뒤졌다.

한국 위로는 6개국이 지리했다. 튀르키예(+1.6%), 덴마크(+1.3%), 코스타리카(+1.2%), 노르웨이·미국·폴란드(+0.8%)다. 포스페인·슬로베니아(+0.7%)가 한국과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2분기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3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회·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처럼 주요국 비교에서 상위권에 속했으나 올해 1분기에 GDP(-0.2%)가 후퇴한 데 따라 2분기에 기저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보다 앞선 작년

4분기(+0.1%), 3분기(+0.1%), 2분기(-0.2%)에도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을 한 바 있다. 이에 본격 회복세라고 속단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올해 3분기 수치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정부가 각 분야에 2차 추경을 투입 중인 것은 물론,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소비심리 되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단, 미국발 관세 여파 등은 수출·성장률에 중대한 관건이다.

2분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한국 경제엔 저성장이 추세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추세 극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인데 쏟아지는 국내외 지표들은 녹록치 않다.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조만간 앞지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에 밀릴 것이란 추산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올해 명목GDP 성장률 예측과 이달 대만 통계청이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에 따른 계산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우선 지난해 명목GDP 1조8746억 달러에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3.2%)를 대입해 올해 명목GDP 전망치(1조9345억 달러)를 산출한다. 이를 올해 기준 인구(5169만 명)로 나누면 3만7430달러이다.

반면,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GDP는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무려 8.01% 증가했다. 22년 전인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래로 재역전이 현실로 다가왔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해 2%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소득 격차도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테크 기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車·반도체·배터리 등 美 점유율 하락 우려

>> 1면 ‘韓·美 관세협상…’서 계속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대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

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상반기 25% 급등… 압구정 재건축 본격화

4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하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2구역은 14개동, 2571세대 예정

서울 강남 최대어인 압구정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다.

압구정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5% 넘게 급등, 토지거래허가와 대출 등 각종 규제에도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의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을 고시했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 8차와 한양 3·4·6차로 총 1341세대 규모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최고 70층 안팎, 9개 동 1664가구로 재탄생한다. 4구역 조합은 하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규모가 1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부분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과 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안상미 기자

군, 상권 모두 뛰어나 강남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속도는 시공사 선정에 나선 2구역이 가장 빠르다. 신현대 9·11·12차인 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14개 동, 2571세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2차 입찰을 앞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준공 50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격은 급등세다. 특히 지난해 2~5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이 지나 매매가 가능해 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압구정의 매매가격은 25.8%나 급등해 대치

(18.1%)나 반포(8%)를 크게 앞질렀다.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침체기에도 압구정의 하락폭은 0.7%에 그쳤고, 2023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단지별로는 50평대의 경우 압구정 3구역에서 현대 1, 2차 52평이 98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2구역에서도 신현대 51평이 90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5구역에서는 실거래가 모두 80억원 이상에서 이뤄졌고, 최근 호가는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 30평대로는 속도가 빠른 신현대가 75억원으로 지난 7월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한강 조망과 대규모 단지, 초고층 브랜드 신축 기대 등 미래 주거 트렌드 뿐만 아니라 교통, 공원, 상업·집객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압구정의 입지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대지지분 정리 등 이슈로 인해 사업 장기화 여부가 시장 기대심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재건축 동력이 더욱 강화되고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해커, 피해자의 ‘상세 개인정보’ 확보 가능성 커

KT 소액결제 해킹 의문점

‘피해자 명의’ 티머니 카드 충전
금전인 이득 얻을 수 없는 구조
‘비효율 범죄’ 저지른 이유 의문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가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IMSI)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팜토셀)을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범행 수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핵심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전담고객센터로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11일 오후 시 기준 총 9만2034건에 달한다. 또 KT는 황 의원이 요구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월별 관리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의문 1. 범인은 어떻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나

경찰과 KT에 따르면, 해커는 탈취한 정보로 티머니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같은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발견된다.

◇이득 없는 티머니 충전: 휴대폰 소액결제로 티머니를 충전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적이다. 즉, 해커는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준 셈이 된다. 해커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타인에게 넘길 수는 있지만,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기엔 매우 번거로운 방식이다.

◇엇갈리는 설명: KT 측은 “실제 물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김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Customer)부문장.

/손진영 기자 son@

품 구매 등 (해커가) 돈을 쓴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커가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밝혀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해커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현금화했다면 자금 추적을 통해 범인 특정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왜 이런 비효율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의문 2. 불법 기지국만으로 소액결제 가능하나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 식별정보인 IMSI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차량에 팜토셀을 싣고 다니며 특정 지역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채는 ‘워 드라이빙’ 수법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액결제 전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추가 개인정보의 필요성: 소액결제를 완료하려면 IMSI 정보 외에도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불법 기지국은 통신 트래픽을 가로챌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알아낼 수는 없다.

◇또 다른 정보 유출 가능성: 이는 해

커가 팜토셀 해킹과는 별개의 경로로 이미 피해자들의 상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범인이 추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 KT 내부나 혹은 제3의 경로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의문 3. 왜 KT만 표적이 되었나

유독 KT 고객들에게서만 피해가 집중된 이유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안 투자 약속 무색: KT는 불과 두달 전 “정보보호 분야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 초기에는 단순 ‘스미싱’으로 판단하는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KT만의 취약점 존재?: 해킹 수법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KT 통신망의 특정 취약점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법인지는 미지수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도 “왜 KT만 당했는지 답을 내놓기 어렵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글로벌·식품관’ 투트랙 전략 가동… 업태 한계 넘어 재도약

진화하는 K-백화점

국내 백화점들이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이중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하나는 해외 시장 개척, 또 하나는 식품관 경쟁력 강화다. 저출산·고령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 구조적 변화로 내수 기반이 약화되자 백화점들이 ‘K브랜드 수출 플랫폼’과 ‘맛집 유치전’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9일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에 ‘더현대 글로벌’ 첫 매장을 연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개점하는 첫 사례다. 단순 임대 매장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직접 국내 브랜드를 선별해 현지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출·판매·리테일 협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K패션 플랫폼’으로, 향후 5년간 일본 내 5개 매장을 순차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 오모테 산도에 플래그십 스토어도 선보인다.

현대 H ‘더현대 글로벌’ 오픈 예정
신세계 K패션·K뷰티 해외진출 지원
롯데 프리미엄 식품관 차별화 나서

신세계백화점은 ‘하이퍼그라운드’ 프로젝트로 K패션·K뷰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태국 시암몰, 일본 한류백화점에서 팝업을 진행한 데 이어, 현재는 파리 뽀렝팡 백화점에서 13개 K뷰티 브랜드와 대규모 팝업을 운영 중이다. 출범 첫해인 2023년 160여 개 브랜드가 약 50억 원 규모의 수수 상담을 성사시키며 성과를 거뒀다.

롯데백화점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택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4개 점포를 운영하며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 것이다. 2023년 9월 하노이에 개장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1년 만에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2분기 매출



더현대 글로벌 일본 팝업 현장.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델리전문관.

/신세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전경.

/롯데쇼핑

은 전년 대비 25.1% 늘었다. 자카르타점에는 2500평 규모의 ‘K존’을 조성해 K컬처·한식·K뷰티를 한데 모아 차별화를 꾀했다.

업계는 현대·신세계처럼 ‘간접 진출’을 선택하면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고 본다. 다만 성과가 파트너 협력 구조에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롯데처럼 ‘직접 진출’은 브랜드 존재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지만, 투자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뚜렷해 3~5년 안에 해외 전략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단순한 유행 추종이 아니라 K브랜드 성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식품관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자, 백화점들은 가격 장벽이 낮고 경험 소비 성격이 강한 식품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은 2022년 12.7%에서 2024년 13.5%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최근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열었다. 일본 ‘교토 오니마루’, 베트남 ‘블루버터플라이’, 벨기에 ‘고디바 크레페’ 등 해외 인기 브랜드가 국내 첫 매장으로 들어왔고, 미쉐린 스타 셰프 김도윤의 ‘서연’, 제주 숙성도 계열의 ‘화돈점정’ 등 스타 셰프 매장도 자리 잡았다. 신세계는 강남점을 ‘글로벌 미식

데스티네이션’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레피세리(Lepicerie)’를 앞세워 프리미엄 식품관 차별화에 나섰다. 2023년 인천점에서 시작한 레피세리는 현재 명동본점·강남점·평촌점 등으로 확대됐다. 비건·친환경 콘셉트와 즉석 요리존을 결합해 기존 대비 매출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고, 2030세대 매출은 90% 이상 증가했다. 인천점은 올해 3월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모객 효과를 입증했다. 롯데는 잠실 본관 등 핵심 점포로 확대해 ‘4조 백화점’ 전략을 추진한다.

현대백화점은 델리코너에 팝업스토어 방식을 적용해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중동점 식품관 리뉴얼을 통해 56개 신규 브랜드를 입점 시켰으며, 더현대서울 등 주요 점포에서도 같은 전략을 펼친다. 한화갤러리아도 지난 5월 명품관 ‘고메이494’에 15개 맛집을 한꺼번에 열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국내 최초 입점 브랜드로,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 브랜드 ‘메종 라봉비에트’ 베이커리와 유명 셰프 레스토랑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식품관 강화를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타 카테고리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한 관계자는 “식품 구매 고객의 70~80%가 다른 매장에서 소비한다”며 “맛집 유치와 팝업 운영은 단순 먹거리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백화점 업계가 내놓은 ‘해외 진

출’과 ‘식품관 강화’는 단순한 매출 방어 가 아니라 브랜드와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으로 내수 침체

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oul.co.kr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도가 성장 좌우”

» 1면 ‘새 판 짜는 유통가’서 계속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를 양축으로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단순 오픈마켓을 넘어 물류 내재화, 포털 기반 중개, 버티컬 커머스로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 손잡고 물류망을 확장하는 동시에 미식·뷰티 등 특화 카테고리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관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은 물류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 11번가는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을 발판 삼아 전체 실적 회복을 꾀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일본 정규 매장 오픈에 이어 국내 백화점 최초로 대만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신세계는 ‘하이퍼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 뽀렝팡, 방콕 시암몰 등 해외 유명 백화점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K

패션·K뷰티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직접 진출,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가 개점 1년 만에 방문객 1000만 명을 기록하며 매출도 25% 이상 성장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 대형마트들은 초가성비 전략을 앞세웠다. 이마트는 전 상품 5000원 이하의 PB ‘오케이 프라이스’를 론칭했으며 연내 2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5000원대 도시락·파스타 등 델리 제품을 늘려 매출을 끌어올렸고, 김스클럽도 전품목 3990원 ‘델리 바이 애슬리’로 지난해 누적 판매 700만개를 기록하며 매출을 대폭 확대했다.

편의점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단순한 ‘가까운 가게’가 아니라 택배·금융·행정 서비스까지 품은 생활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성장 공식을 답습할 수 없다”며 “디지털 전환, 해외 시장, 업태 진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120조 투자, HBM 중심 AI 반도체 생산거점 세운다

산업의 최전선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 산업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지난 2023년 1890억달러 규모에서 2033년 4조 8000억달러 규모로 10년간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SK하이닉스의 기술 투자 로드맵을 들여다본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120조원 투자'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415만㎡ 규모 부지에 신규 메모리 생산 기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최첨단 팹 4개를 짓고 국내 외 50여개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협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첫 팹 건설 이후 나머지 3개 팹도 순차적으로 완공해 용인 클러스터를 '글로벌 AI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첫 번째 팹에서 대표적인 AI 메모리인 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을 생산할 예정이며 완공 시점 시장 수요에 맞춰 다른 제품 생산에도 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총 투자규모는 약 120조원이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를 돕기 위해 '미니팹'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내부에 클린룸 1000평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미니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mm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이다. 미니팹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 반도체 시험장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1월 본예타를 통과했다. 미니팹 사업은 총 4469억원



K하이닉스 신규 팹(Fab) M15X 건설 조감도.

이 투입돼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미니팹을 통해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환경과 같은 조건의 실증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은 27년 2분기 준공을 목표로 최근 착공에 돌입했다.

용인에 120조 규모 클러스터 추진 4개 팹 건설, 1기 2027년 준공 목표 미니팹으로 소부장 실증·평가 지원 청주·인디애나 거점 확장 본격화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정부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1조 2200억원 규모의 협업업체 상생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상생펀드 조성 3000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380억원 ▲공동 R&D에 2800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상생펀드로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관련 성장가능성 있는 기술혁신기업에 사업 자금 무이자 대출 및 스타트업 자금 지원, 중장기 지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진행에도 638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산단 내 대중소기업의 창업연구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활용될 상생협력센터 설립, 반도체 특화 안전 교육시설 및 에너지 저감 인프라 구축 등에 480억 원을 투입한다. 동시에 미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태계 조성 및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프로그램 진행에 10년간 5900억원

(연간 59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산화 지원(연간 360억원) ▲반도체·AI 벤처 창업 육성(연간 80억원) ▲반도체 인재 육성(연간 100억원) ▲협력사 고용 지원(연간 10억원) ▲환경·안전·보건 지원(연간 30억원) ▲산업보안 및 경영 지원(연간 10억원) 등이다.

▲국내외 거점 투자로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비전 가속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에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충북 청주캠퍼스에 6만 3000평 규모의 북중 팹인 M15X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M15X는 올 11월 준공 후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추게 된다.

해외 거점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 미국 인디애나 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애나 팹에서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내외 거점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대에 세계 최고 성능의 AI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갖춰 나가며,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 투자 확대로 미래 준비

SK하이닉스는 R&D 적기 투자를 통해 제품 기술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일류 기술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올 상반기 R&D 투자비용은 3조 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시설 투자액은 11조 2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가량 급증했다.

SK하이닉스는 AI용 초고성능 D램인 HBM 분야에서 확고한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했다. 올해 3월에는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 제공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한 바 있다. HBM4 12단 제품은 AI 메모리가 갖춰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용량을 갖춘 제품으로 초당 2TB(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구현했다. 이는 FHD급 영화 400편 이상의 분량을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HBM을 뛰어 AI 메모리 성공 신화를 이어 나갈 차세대 메모리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은 SK하이닉스가 주목하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로, 저장과 연산의 경계를 허문 혁신 제품이다. 연산용 프로세서를 집적한 이 메모리는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SK하이닉스는 자사 PIM 제품인 'GDDR6-AiM(액셀러레이터 인 메모리)'을 이미 출시한 바 있고, 이 제품 여러 개를 연결해 성능을 높인 가속기 카드 'AiMX'도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용량을 2배 늘린 AiMX 32GB 제품을 공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HBM4 12단 세계 최초 제공 성과 PIM·AiMX로 지능형 메모리 확대 초고용량 eSSD 개발 프로젝트 진행 DDR5·R&D 투자로 기술 선도 강화

SK하이닉스는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용 초고속·고용량 eSSD를 개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솔리다임과 합작해 개발한 '60TB QLC(쿼드 레벨 셀)eSSD'를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셀당 4bit(비트)를 저장하면서 전력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올해 출시를 목표로 300TB 용량의 eSSD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D램 근원 기술 혁신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1c 미세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DDR5 D램 개발에 성공했다. 10나노급 D램 기술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미세공정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졌으나, SK하이닉스는 업계 최고 성능이 입증된 5세대(1b)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술한계를 돌파해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제품을 공급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평일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

‘대미투자 난항’ 분위기 바뀔까…李-트럼프 추가협상 가능성도

美 구금사태, 비자발급 협상 영향
관세협상 후속협의서 유리할 수도
유엔총회서 한미 정상회담 기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한미 관세협상의 새로운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대미 투자 위축될 수 있어서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력 펀드의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8일 만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투자를 독려했고, 우리 기업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

들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인 데다,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수가 없을 것이고,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

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국 인력의 비자 발급 협상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일단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E-4)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또 관세협상 후속협의도 유리하게 풀어나갈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측에서 투자 심리 위축과 사업 지연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에 지어지고 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2~3개월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 펀드와 관련해 운용 방식, 결정 구조, 이익 배분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갖겠다는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2일 (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협상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통상 당국은 회담 종료 후에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5%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직 발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5%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25% 관세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존재한 상황인데, 이제는 일본보다도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팔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협상 후속협의 새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3대개혁 점검” vs 野 “美 구금 재발 방지·배임죄 완화”

나흘간 대정부질문 실시

與 ‘국격·국익, 국민혜택’ 중점 질문
野, 李 정부 정책·예산 적절성 검증
한미통상협상 중간점검 등 최대 화두

여야가 나흘간 이재명 정부 내각 장관들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이 실시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란 종식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재명 정부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야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한미통상협상에 대한 난맥상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5일엔 정치 분야, 16일엔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엔 경제 분야, 1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국격과 국익, 국가대개혁과 국력, 국민혜택을 중점에 두고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만큼,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을 내세워 꼼꼼하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 첫째날 3대 개혁 추진 과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핵심 쟁점을 관련 부처 장관에 점검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저는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한미통상협상 중간 점검이 최대 화두가 될 예정이다. 앞서 현지시간 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하고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에 구금했다.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구금자들의 석방 및 구금 일정을 조율한 결과 지난 12일(한국시간) 총 330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초 단속 당시에도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수갑을 채워 감금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어야 했다”며 “출국 절차도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마저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조사 회피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조정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후속 보완 조치로 배임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에 석유화학·철강·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는 의원들은 해당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산업 지원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해수부 이전·가덕도 신공항 건설’ 최선을 다해 도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 1박2일 부산 찾아
장동혁, 부처 분산 반대 입장에서 선회
오늘 임시청사 방문해 메시지 낼 전망

국민의힘 지도부가 1박2일 일정으로 14일 부산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의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과 해양수산부(해수부) 이전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부산 시민에게 설명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산은 우리 국민의힘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곳”이라며 “또 최근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 것 같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부산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사업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전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정부부처 분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만, 당 대표 취임 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부의 졸속 이전과 성급한 일처리에 반대하는 것이지, 해수부와 함께 부처 유관기관까지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입장

을 선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12월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지역의 신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은 주요 건설사의 이탈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관사인 현대건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까지 사업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 부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며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열망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신공항은 하나의 공항을 건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동권 전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하는 것이고 수도권권을 아울러 균형발전 새 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년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하늘길이 열려서 부산이 글로벌 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고 유능한 인재 모이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15일에도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현장 일정을 이어간다. 장 대표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해양수산부가 옮겨갈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해 부산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리디아고
Lydia KO

LPGA 통산 23승

이민지
Minjee LEE

LPGA 통산 11승

마다솜
Dasom MA

Defending Champion

이예원
Yewon LEE

노승희
Seunghui RO

황유민
Yumin HWANG

박연경
Hyunkyung PARK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5. 9. 18(목) ~ 9. 21(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관 |



방송 |



기획/운영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미래적금 vs 도약계좌… 청년 정책금융상품 선택 기로

내년 ‘청년미래적금’ 첫 출시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중단
납입기간·금액 따라 손익 갈려
소득구간별 유불리 비교 필요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시스

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선부터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융위·금감원

예적금·카드포인트 등 숨은금융 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 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보험의 만기에도 수령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 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기 도래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채투자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대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당국 ‘보험개혁’ 시동… 수수료·채널·통제구조 새판짜기

초기판매 억제, 유지보상 강화
GA위험평가로 자본비용 연계
방가 규제 합리화 선택권 확대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정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동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 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 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 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

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은행, 국민연금기금 우협 선정

13개 정량·정성 지표 높게 평가
1순위 국내 수탁은행으로 선정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 국내 수탁은행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탁은행을 지정한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총 1200조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다.

우리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재무 안정성 등 13개의 정량·정성 지표에서 ▲안

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전산·결제 시스템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역량 등을 높게 평가받아 1순위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수탁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자산관

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지난 18년간 국민연금의 전 기금자산 수탁 업무를 수행한 유일한 은행”이라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은성산업·은성건설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다산월드메르디앙 센타하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3개동, 전용면적 74~121㎡, 총 463가구 규모다.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일원에 광명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 2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총 6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지원 기자 jiw13@

대한전선·LS전선, 동남아 해저·초고압 케이블 수주 ‘질주’

AI 확산에 전력망 수요 급증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가속
동남아 전진기지 투자 본격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패권 도전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국내 케이블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늘리고 기술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영향력을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선업계는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를 보이는 동남아의 전력·통신 등 케이블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와 투자계획을 내놓으며 집중 공략하고 있다. 베트남의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6기가와트(GW)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6%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전력 수요도 연평균 10~12%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화 정책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한전선과 동나이성 관계자가 투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대한전선

I)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잠재력을 배경으로 국내 케이블 기업들은 몰들어 동남아 시장에서 역대급 수주전과 과감한 현지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한전선은 자회사

대한비나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해 베트남 동나이성 당국과 지난주 협의를 마쳤다. 투자 규모는 약 750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전력청과 400킬로볼트(kV) 초고압 전력망 공급·설치 계약(약 1100억 원)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국가 간 전력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400kV급 지중 전력망을 풀 단기 방식(설계·시공·인도 일괄 수행)으로 구축한다.

대한전선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마 해상풍력 해저케이블(1816억 원), 싱가포르 400kV 전력망(1100억 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2200억 원) 등 총 5100억 원 규모 신규 계약을 확보했다.

LS전선은 대만 사업을 잇따라 성사시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만 해상풍력 ‘포모사(Formosa) 4’ 프로젝트에서 약 160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19년 대만 첫 계약 이후 상용화 1단계 모든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연속 수주를 이어갔다.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은 지난 4월 대만에서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확보하

며 국내 해저 시공사 최초 해외 진출 기록도 세웠다.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지난달 베트남 페트로베트남과 해저케이블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 푸미항에 해저케이블 공장과 전용 부두 건설을 검토 중이며, 연내 JV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망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지난 5월 필리핀 최대 데이터센터 ‘STT 페어뷰 캠퍼스’에 중·저압 케이블을 공급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대규모 리전(데이터센터 집합)에 초고압 케이블을 납품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저·초고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세계 첫 HBM4 양산… 단가 30% 이상 상승

삼성·마이크론 후발 추격전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대기
고단가 메모리 수용 불가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 선점에 한발 다가섰다. 공급사가 한정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층은 가격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HBM4의 내부 인증과 고객사 평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현재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 물량·단가 협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BM4는 HBM3E 대비 30~40% 이상 비쌀 것으로 전망되

며, 일부에서는 단품 가격이 500달러(한화 약 7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연내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단독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HBM4의 가격 인상폭이 큰 이유는 적층 수 확대와 대역폭 개선 등 기술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12단 적층에서 최대 16단으로 늘어나면서 열·수율 관리가 까다로워졌고, I/O 속도가 10Gbps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신호 무결성 확보가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초기 양산 시 수율이 낮은 것도 단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 프리미엄을 불일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

이다.

엔비디아가 최근 “1억 달러 투자로 50억 달러 매출을 거둘 수 있다”고 밝힌 점도 HBM4 고단가를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AI 인프라의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체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후속인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HBM4의 가격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공급사 확대와 수율 안정화가 본격화되는 2026년 이후에는 단가 인상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HBM4를 기점으로 메모리사 간 가격 협상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전자·마이크론의 후발 양산 진입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HBM4 대응 4세대 6세대 D램(1c) 생산라인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평택 P4를 중심으로 1c D램 설비 전환 투자를 마무리하고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2025 미래포럼’을 열고 경영진과 국내외 석학들이 글로벌 AI 시장 트렌드와 반도체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노정 사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SK하이닉스만의 딥 시퀀스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파나소닉코리아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바이탈리프트 RF EX.

파나소닉

피부보습·탄력 효과 강화 뷰티 디바이스 3종 선보

파나소닉이 EMS(전기 근육 자극), 고주파(RF), 온열 등 전문 에스테틱 기술을 집약한 뷰티 디바이스 3종 신제품을 선보였다.

파나소닉코리아는 14일 1962년 첫 페이스 리프팅 디바이스 출시 이후 6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반영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 제품은 ▲EMS 팔사 디바이스 ‘바이탈리프트 카사(EH-SP86)’ ▲고주파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바이탈리프트 RF EX(EH-SR86)’ ▲올인원 이온 부스터 ‘이온 부스트 멀티 EX(EH-SS85)’다.

‘바이탈리프트 카사’는 EMS를 적용한 팔사형 디바이스로, 얼굴 탄력 개선과 붓기 완화, 전신 관리에 적합하다. ‘소프트 엑서사이즈 EMS’(100Hz 연속 자극)과 ‘듀얼 다이내믹 EMS 믹스’(수축·이완 반복) 2가지 EMS를 탑재했으며, ▲WEMS 리프트 ▲퀵 ▲웜 트리트먼트 3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바이탈리프트 RF EX’는 4MHz 고출력 RF에 EMS, 레드 LED, 이온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RF X EMS 리프트 ▲RF 펌프 등 5가지 모드로 피부 탄력·관체·보습 관리가 가능하다.

/정희준 기자

LG, NFL 구장 디스플레이로 美 팬심 공략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2년 파트너십
65m 전광판·메쉬 LED 외벽 설치

LG전자가 미국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인 프로풋볼리그(NFL)를 통해 소비자 현지 소비자층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NFL의 전통 강호로 꼽히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2년간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홈구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LG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레이븐스 홈구장인 M&T 뱅크 스타디움의 개·보수를 포함해 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한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내년 시즌까지 M&T 뱅크 스타디움에 총 1115㎡ 규모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관객 입장 게이트에 약 65m 길이로 조성되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스타디

움의 새로운 상징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스타디움 내부 복도 등 관람객의 이동 동선 곳곳에 100대 이상의 LG TV가 설치된다.

시즌 종료 후에는 스타디움 외부 개·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약 215㎡ 규모의 LED 디스플레이를 외벽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되는 LED 디스플레이는 고층이나 곡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와 유연성이 특징인 메쉬 LED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LG전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팬들을 대상으로 월간 ‘가장 신뢰받는 선수’를 뽑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LG전자는 경기의 생생함을 더하는 혁신 디스플레이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야구와 축구, 미식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팬들에게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협동로봇 기반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한화로보틱스·위아공작기계

EMO2025 전시회서 첫 공개

한화로보틱스와 위아공작기계가 스마트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동로봇을 활용한 공장기계 자동화 솔루션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지난 9월 11일 MOU를 체결하고 공장기계와 협동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조 경쟁력 강화와 자동화 솔루션 고도화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위아공작기계는 과거 현대차그룹 생산라인 자동화 구성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화 역량을 구축해 왔다. 여기에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협동로봇(Cobot) 기반 기술을 접목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9월 22일 독일 하노버에



위아공작기계 주재진 대표(왼쪽)와 한화로보틱스 정병찬 대표가 11일 ‘협동로봇을 활용한 공장기계 자동화 솔루션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서 열리는 EMO2025 전시회를 통해 공동 개발한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 2종을 세계 시장에 첫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머신텐딩 분야에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협력은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주도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K-기업, 멕시코發 고율관세 ‘비상’ 車·가전 등 수출전략 수정 불가피

멕시코 정부, 최대 50% 부과 방침
500여개 한국계 기업 수출 파장
“팔아도 적자 되는 상황이 올수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고율 관세 부과 위기를 일단 넘겼지만 멕시코 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에 수출 기업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와 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핵심 생산 기지이다. 미국의 관세 대응에 집중했던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관세 소식에 대응책 마련이 복잡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현행 0~35%의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한국

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만큼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다.

현재 미국 수출 물량 대응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500여 개 한국계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업체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 자동차 부품은 2022년 기준 대멕시코 수출 1위 품목(18억 2000만 달러, 약 2조 5000억원)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다. 멕시코에 연산 40만대 규모의 기아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멕시코로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아 역시 부담이 크다. 북미와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물량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는 멕시코 정부의 고율 관세 부담이 확대될 경우 제품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티후아나와 케레타로, LG전자는 레이노사와 몬테레이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양사 모두 가전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과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비용 상승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멕시코의 고율관세 정책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고율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나오고 있다”며 “제품을 팔아도 적자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 수출 기지의 현지화 전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 외관 모습.

3.7초 제로백·안전 풀패키지… CC 한계 극복 (크로스컨트리)

자동차 시승기 볼보 EX30CC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
플래그십 모델 수준 안전기술 적용

볼보가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을 전기차 시대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높아진 지상고와 사륜구동(AWD) 시스템, 듀얼모터 파워트레인이 결합해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북유럽식 미니멀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실내는 소형 SUV의 한계를 넘어선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약 140km를 달린 시승 코스에서 EX30CC는 첫인상부터 단단함이 느껴졌다.

전면 블랙 실드 패널에는 스웨덴 케브네카이세 산맥 지형도가 새겨져 크로스컨트리의 상징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고 전후면 스키드 플레이트와 전용 블랙 휠 아치, 19인치 매트 블랙 휠은 SUV 특유의 강인함을 완성했다. 작은 차체임에도 강력한 존재감을 풍기는 이유다.

실내는 북유럽식 라운지를 연상하게 했다. 대시보드는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 수평선을 강조하며 개방감을 확보했고 센터 콘솔은 앞뒤로 이동 가능해 수납 유연성을 확보했으며 대형 수납함과 도어 패널 공간 활용은 실용성을 높였다. 단순히 ‘작은 SUV’가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 공간으로 체감됐다. 특히 리사이클 소재를 곳곳에 배치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었고, 직관적인 UI를 갖춘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만하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기존 후륜구동 기반 200kW 모터에 115kW 전륜 모터를 더한 듀얼모터 시스템으로 총 출력 315kW(428마력), 최대토크 55.4kg·m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7초면 도달하는 가속력은 볼보 역사상 최단 기록이다. 포르쉐 타이칸 GTS에 맞먹는 성능임에도 주행 감각은 날카롭지 않고 매끄럽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적고 방향 전환 시 즉각적으로 자세를 회복해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준다.

지상고는 기존 EX30 대비 19mm 높아졌다. 전용 컴포트 새시가 12mm, 두꺼워진 타이어가 7mm를 더하면서 완성됐다. 다양한 노면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크로스컨트리 전용 새시와 조합돼 도심과 교외, 고속도로 모두에서 일관된 승차감을 제공한다. 짧은 시승 구간이었음에도 노면 충격이 잘 걸러지고, 차체의 균형감이 유지된다는 점은 전동화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강점으로 다가온다.

운전자 보조 기능도 강화됐다. 원페달 주행은 끄기·저·고 세 단계로 조정 가능해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전진 크립 모드는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감각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볼보의 안전 철학은 이번에도 견고했다. 운전대 상단에 IR 센서가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해 졸음이나 주의 산만을 즉각 경고하고 문 열림 경보 시스템은 보행자와 자전거 접근 시 사고를 예방한다. 5개 레이더, 5개 카메라, 12개 초음파 센서가 결합된 첨단 안전 시스템은 차세대 파일럿 어시스트, 사각지대 경보 및 조향 어시스트, 도로 이탈 방지, 후방 교차 경고, 자동 주차 보조까지 지원한다. 안전 기술 전반이 플래그십 모델 수준으로 적용됐다.

실내 편의성 또한 충실하다. 글라스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하단카톤 사운드바는 실내 전역에 고른 음향을 전달했다. 다양한 수납공간은 일상적 활용성을 높였고, 2열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글라스루프 덕분에 개방감으로 보완됐다. 여기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필터 시스템도 탑재돼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충전 효율도 안정적이다. 복합 주행 가능거리는 329km이며 급속 충전 시 10~80%까지 약 2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실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감안하면 도심 출퇴근과 주말 교외 여행까지 무리 없는 수준이다.

국내 판매 가격은 5516만 원으로 책정됐다. 스웨덴(8991만 원), 독일(9295만 원), 영국(8520만 원) 등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최대 350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 여기에 5년/10만km 일반 부품 보증, 8년/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 15년 OTA 무상 업데이트, 5년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까지 제공돼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시승에서 만난 EX30CC는 단순한 소형 SUV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새롭게 해석된 북유럽식 모험의 정수를 담은 프리미엄 전기 SUV였다.



볼보 EX30CC 실내 모습.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lsy2665@

근로자 복귀까지 최소 한 달… 경영손실 눈덩이

조지아사태 후폭풍

대규모 구금으로 공정 전반 공백
“고정비 상승 등 연쇄적 피해 예상”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하며 관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전문인력 수급과 공장 건설 및 가동 일정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인 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 투입까지 최소 6개월, 숙련공 양성에는 5~6년이 걸려 업계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장건설이 늦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로 300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공정 전반의 공백을 메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 중인데 대체 인력을 미국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며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 /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은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 인력을 재투입해 전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귀국한 직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기까지도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미국인 훈련 후 투입’ 방안도 즉시 투입이 필요한 공장 건설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관 조공 보조하는 근로자 교육에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배터리나 반도체는 설비 유지나 장비 설치할 줄 아는 인력 자체가 미국

에 없고, 현장에 필수인 숙련공은 최소 5~6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데 언제 가르쳐서 언제 투입하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작회사의 가동지연에 따른 경영손실도 상당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와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고 매출 감소, 보조금 축소 등 연쇄적 피해가 예상돼 전반적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미국 B1 비자 해석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B1 비자는 미국 정부의 외교업무대뉴얼(FAM)에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업무도 가능하다.

정부는 미 당국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신설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20개사 3억 자금·50억 보증
“벤처천억기업 성장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지원대상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트랙은 투자 유치 이익이 없는 기업 중 업력 4~10년 이하, 매출액 20

억~600억원 이하 벤처기업을 ‘벤처천억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최대 3억원의 경쟁력강화 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43개사가 신청해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개사 평균 업력은 6.7년, 평균매출액은 327억원(작

년 말 기준),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는 55.5%로 나타났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외부 투자유치 없이 자체적인 매출과 수익을 통해 성장하는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들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섭취 시 암 치료·예방” AI 활용 허위광고 기승

유명 토크쇼 전문가 소개 영상
AI·음성합성으로 만든 가짜
식약처 단속 피하려는 변종
유튜브 등 플랫폼 책임론 커져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서는 유명 토크쇼나 팟캐스트에 등장한 전문가가 특정 상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소개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영상 생성형 AI와 음성합성(TTS)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일 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단순 식품이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에도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광고는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대해 “제품 섭취 시 예방·치료가 가능하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을 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유행하는 광고들은 전문가로 착각할 만한 인물을 토크쇼나 인터뷰 장면 등에 등장시키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진짜처럼 설명하며 비만·암·노화·치매 치료 효과를 주장한다. 목소리는 합성 특유의 어색함이 있지만 짧은 광고 특성상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전문가가 방송에서 발언한다’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

예컨대 A 제품 광고에서는 한 남성이 팟캐스트 촬영 현장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일본 흡연자들은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일본산 유기농 말차 성분이 폐의 니코틴을 제거해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광고에서도 ‘영양제’라 표기했음에도 실제 유형은 단순 음료 베이스 식품으로, 효과·효능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마케팅 업계는 이 같은 ‘전문가 오인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전문가 오인형 딥페이크 허위 광고의 모습. /캡처

형’ 광고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려는 변종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마케터 조은희 씨는 “여름 내내 가짜 의사·약사가 등장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렸는데, 식약처 단속이 시작되자 흰 가운이나 병원 배경 대신 토크쇼·팟캐스트 형식으로 바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가짜 의사가 특정 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광고 내용에 허위·과장이 있을 경우에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AI 가짜 인물의 등장 자체도 불법 광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유튜브와 SNS 플랫폼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허위 광고를 신고해도 조치가 늦어지자, 일부에서는 특정 유형의 제품 광고는 곧바로 집행 정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제보자 김나영 씨는 “암 환자가 있는 입장에서 이런 광고를 볼 때마다 신고했지만 여전히 계속 나온다”며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속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가 일정 건수 이상 접수되면 광고를 즉시 중단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헬로비전, ‘눈에 띄는 그녀들’ 첫 방송

다양한 직업 가진 여성 이야기 그려

LG헬로비전이 일반 여성들의 특별한 직업과 삶을 조명해온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 시즌8을 15일 첫 방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별, 나이, 지역 등 기존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시즌7까지 총 93명의 여성 주인공이 출연하고 원슈트 점퍼, 트럭커, 양봉업자, 서아프리카 댄서, 기관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도전이 그려졌다.

매 시즌 다채로운 직업과 인물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2030 여성들의 삶을 조명할 시선이

MZ세대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자극 없이도 깊은 여운과 울림을 주는 휴먼 다큐멘터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시즌에서는 더욱 확장된 직업군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담겼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여성들을 조명하고 도전과 변화, 선택의 용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 예정이다.

이번 시즌은 말 목장을 운영하는 권가빈 씨를 시작으로 배달 라이더, 여자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토바이 정비사 등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을 해나가는 여성 히어로 15명의 특별한 스토리가 공개된다.

/김서현 기자

박정무 “세대 간 교류접점 만들어 뿌듯 매출보다 팬 경험·콘텐츠 소비 중시”

(넥슨 부사장)

아이콘매치 2025

“FC온라인·모바일 팬들에 보답”
새롭게 출범한 FSL 접점 확대도
게임-스포츠 융합형 콘텐츠 사례

“아이콘매치는 FC온라인·FC모바일을 사랑해준 팬들에 대한 보답이다.”
박정무 넥슨 부사장의 말이다.

넥슨이 주최한 ‘아이콘매치 2025’가 지난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틀간 일정을 이어갔다. 전날 이벤트 매치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몰려 흥행 가능성을 보여줬고, 14일 본경기는 약6만석 전석이 매진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이콘매치는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무대다. 티에리 앙리, 디디에 드로그바, 리오 퍼디난드, 카카 등이 지난해에 이어 참가했고, 호나우지뉴와 스티븐 제라드가 새롭게 합류했다. 팬들은 명문 구단의 역사와 스타들의 개인기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호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이벤트 매치에서는 1대1 끝장 대결, 터치 챌린지, 파워도르(슈팅 대결), 커브 슈팅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일부 선수들은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오늘 열리는 메인 매치는 공격수 팀 ‘FC 스피어’와 수비수 팀 ‘실드 유나이티드’의 11대11 맞대결이다. 아르센 벵거 감독이 스피어를,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실드를 지휘하며 단순한 친선전이 아닌 전술 대결의 성격도 띤다.

박 부사장은 전날 미디어데이에서 “작년에는 준비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



(왼쪽부터)디디에 드로그바와 넥슨 박정무 부사장, 리오 퍼디난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지만 올해는 감독, 선수, 스퀴드를 보강하며 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스널의 무패 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황금기 선수들이 포함됐고, 바르셀로나 시절 함께 뛰었던 호나우지뉴와 푸울이 다른 팀에서 만나는 장면도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번 아이콘매치는 게임과 현장의 연계도 강화했다. 박 부사장은 “아이콘매치에서의 퍼포먼스가 FC온라인·FC모바일 선수 능력치에 일부 반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새롭게 출범한 FC온라인 리그(FSL)와도 접점을 넓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 교류의 의미도 언급했다. “아버지는 현역 시절 경기를 기억하고, 아들은 게임을 통해 같은 선수를 알게 돼 함께 경기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세대 간 교류의 접점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이콘매치가 매출 확대와 직결되는 나쁜 질문에는 “트래픽이 많을수록 좋지만 이번에는 매출보다는 팬 경험과 콘

텐츠 소비를 중시한다”며 “맛글과 반응도 게임에 대한 관심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는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브랜드 가치와 팬덤 확산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장 연출과 팬서비스도 강화했다. 드론 연출, 조명 효과, 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몰입도를 높였고, 외곽에는 사인화·굿즈 판매·포토존이 운영돼 팬들이 축구와 게임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이콘매치는 넥슨이 추구하는 ‘게임-스포츠 융합형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설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즐기고, 그 결과가 다시 게임 속 데이터에 반영되는 구조는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14일 본경기로 ‘아이콘매치 2025’ 공식 일정은 막을 내리지만, 넥슨은 장기 프로젝트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정무 부사장은 “지금 경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이콘매치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URL·배너 등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 문자는 스미싱”

2차 지급시기 맞춰 스미싱 주의보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스미싱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수법을 14일 공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나 전화 유도 내용을 담아 개인 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1차 소비쿠폰 당시 탐지된 스미싱은 430건으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악성 앱은 감염된 휴대전

화에서 주변인에게 스미싱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이번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나 배너, 앱푸시가 포함된 문자·SNS 안내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안내문을 받으면 스미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우려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이용 일반 문의는 110번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부터 통신사 명의의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및 은행·주민센터 등 대면 창구에서도 주의 문구를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모니터링과 수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U+, 국제무대에서 ‘익시오’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선포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인천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와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AI 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 부스에서는 온디바이스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을 비롯해 위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안티딤보이스’, 합성 영상을 가려내는 ‘안티딤페이크’ 기능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열리며, 전세계 법과학·법의학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다. LG유플러스는 행사 기간 중 ‘범피 예방으

로 활용되는 AI 테크 익시오’를 주제로 기술 발표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열리는 GPA 2025에서도 익시오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89개국 감독기구, 학계,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연일 최고점’ 연말 더 상승?... “기업 실적·수급력 살펴야”

코스피, 지금 올라타도 될까

이달들어 245개 종목 신고가 행진 대신·NH “올해 상승추세 지속”
키움 “불확실성 남아 밸리 제한”
DB “실적·수급 갖춘 업종 집중”

‘국장(국내 주식시장) 유턴은 지능순.’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신조어 중 하나다. ‘열심히 일한 돈 주식에 투자했더니 나도 모르게 통장이 두둑해졌다’라는 기대와 희망의 정서가 배어 있다. 시중에는 “누군가의 자산 형성은 ‘이재명 정부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는 말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침체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20~30대의 부(富)의 사다리가 되살아 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코스피지수가 12일 3395.54까지 치솟으며 34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으로의 에셋 파킹(Asset Parking)’이 일어났다”면서 리스크관리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주문한다.



ChatGTP로 생성한 ‘올라가는 코스피 증시를 기대하며 투자 분석 중인 투자자들’.

◆증시로 증시로, 자금 쏠림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주요 3대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시중 돈은 증시로 향한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9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23조7997억원이다. 특히 옐론박스권을 돌파해 4년여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 코스피 불장의 신호탄을 올린 지

난 10일에는 29조590억원으로 전날보다 4조2800억원(17.3%)가량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증시 대기자금도 큰폭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투자자예탁금은 11일 기준 71조118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7.1% 증가했다.

증권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비미국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 여력 또한 확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 상승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신뢰가 재확인되면서 정책 모멘텀(동력)이 회복된 가운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코스피는 현재보다 연말 레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코스피 추가 동력은 ‘실적’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달들어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245개다. 전체 상장 주식 10개 종목 중 1개 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평가한다. 화폐가 많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등 뭐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소위 ‘자산시장으로의 에셋 파킹(Asset Parkin

g)’이다. 이런 흐름에서 현금 보유는 가장 위험한 투자로 전락했다. 현금 자산은 일종의 풋옵션(디플레이에 베팅하는) 투자가 된 것이다.

시장 한편에서는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투자자들이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속 선별투자를 주문한다. 최근의 코스피의 급등세가 기업 실적이나 경기 회복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주주환원 확대, 자본시장 개편 등 정책 모멘텀(동력)에 의한 것이어서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국내 상장사의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코스피의 추가 밸리 여력은 제한될 수 있다”며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는 지속하향 되고 있다”고 짚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도 “코스피의 사적 신고점 경신은 정책 모멘텀에 의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도했으나, 향후 성과는 실적과 수급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실적 기대감과 수급이 동시에 모이는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0대 그룹 시총 600조 ↑... 한화·HD현대 ‘100조 클럽’

KRX, 상장사 219곳 시총 2100조
한화, 시총 증가율 164% ‘1위’ 차지
증가율 2위 미래에셋 150% 급등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주요 대기업의 시가총액도 연초 대비 6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총은 2099조8306억원이다. 올해 1월 2일 1500조2219억원 보다 40.0%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영풍(30위)을 제외한 2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증가했고, 삼성·SK 등 5개 그룹을 제외한 25개 그룹의 순위가 바뀌었다.

시총 증가율 1위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의 시총은 44조8068억원에서 118

조1583억원으로 163.7%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체 219개 상장사 중 시총 증가액 3위를, 한화오션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증가율 2위에 오른 미래에셋의 시총은 5조8826억원에서 14조7285억원으로 150.4% 뛰었다. 이는 상법 개정 영향으로 증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급등한 결과로 풀이된다.

효성은 7조2596억원에서 17조4874억원으로 140.9% 늘며 3위를 기록했다. 10조원이 넘는 증가분의 대부분은 효성중공업에서 나왔다.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와 고수익 전력기수요에 힘입어 시총이 242.7% 불어났다.

두산은 원자력 모멘텀을 타고 시총이 138.8% 늘며 4위에 등극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5685억원에서 40조991억원으로 246.6% 급증했다.

LS는 12조3654억원에서 20조6857억원으로 67.3% 증가하며 5위에 자리했다. 주력사 LS일렉트릭의 시총이 77.9%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설비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HD현대는 79조2896억원에서 131조8215억원으로 66.3% 늘며 6위를 차지했다. 증가액만 52조원에 달해 금액만 놓고 보면 한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로써 HD현대 역시 한화와 함께 새롭게 ‘시총 100조원’ 반열에 올랐다.

SK는 시총이 200조3384억원에서 319조6166억원으로 59.5% 증가해 7위에 올

랐다. 이어 농협(57.5% ↑), HMM(56.1% ↑), 카카오(50.1% ↑) 순이었다.

시총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삼성은 503조7408억원에서 674조9706억원으로 34.0% 늘며, 30대 그룹 전체 시총의 약 32%를 차지했다.

SK는 2위를 지켰고, 3위와 4위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현대차가 135조1076억원에서 172조1879억원으로 27.4% 증가하며 LG를 제쳤다. LG는 3.0% 늘어난 145조588억원으로 4위로 밀려났다.

HD현대는 5위 자리를 유지했고, 한화는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이밖에 두산은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고, 포스코는 다른 그룹들의 가파른 성장세에 밀려 8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증권

2025 투자역량 어워즈 국내 최고성과 기록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 대표 금융전문지 디 에셋(The Asset)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고 투자역량 어워즈(Most Astute Investors Awards 2025)’에서 국내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어워즈에서 ‘최우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G3 Bonds ?Best in Portfolio Management)’ 부문 1위에 올랐으며, 동시에 ‘최우수 채권 투자기관(G3 Bonds·Top Investment Houses)’부문 우수기관(Highly Commended)으로 선정됐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G3(달러·유로·엔화) 채권 시장에서의 운용 전문성과 투자 역량,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파워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디 에셋은 아시아 주요 경제전문가들이 구독하는 대표 금융 전문지로, 매년 아시아 지역 채권·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셀사이드(Sell-side)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탁월한 투자 통찰력과 운용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한다. 최근 조사에는 900명 이상의 전문가와 600여 개 투자기관이 참여해 공신력을 더했다.

미래에셋증권 이재현 채권부문대표는 “이번 수상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역량과 리더십이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증권주, 단기적 ‘약세’... 투자 의견은 ‘비중확대’

KRX증권지수 0.54%오른 1468.81
‘대주주양도세 기준 유지’ 선반영
상법개정안 등 발의, 재평가 가능성

증권주가 정부의 친자본시장정책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지난 12일 전일 대비 0.54% 오른 1468.81로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억원 하향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현행 50억원 기

준 유지에 무게를 실었음에도 증권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차익 실현매물이 원인이라고 거론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권·지주 업종에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지만 현재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슈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주가 선반영으

로 인한 재료 소진 인식에 증권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9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부각시키자 이튿날 KRX증권지수는 7.19%

급증했다. 증권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미래에셋증권(11.68%)과 키움증권(8.71%)이 크게 올랐다.

한편, 차익실현으로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친자본시장 정책에 따라 증권주의 상승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 법안 발의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하반기 증권업종 투자 의견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

/최건우 기자 geon@

韓, UN식품조달 공식업체 지위 획득 국산 영양강화립 WFP 첫 공급 개시

농식품부, 원조·수출 결합 새 모델
범정부 협력, 국제조달시장 첫 진출
젤텍, 방글라데시 난민 인조미 지원
영양강화립 이어 품목 확대 본격 추진
국제사회 기여, 농식품 산업성장 병행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식품조달시장 공급자로 합류한다. 그간 쌀을 단순히 공여해 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조+수출'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새 사업모델의 서막을 연 것이다.

정부는 14일 (취)젤텍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강화립'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양강화립은 쌀가루에 비타민·무기질을 첨가해 쌀알 모양으로 반죽·압출·성형한 인조미다. 쌀의 맛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양가를 높여 영양실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이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이 단순한 쌀 공여를 넘어 국내 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내실화된 ODA 모델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글로벌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WFP 조달담당관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농식품부·조달청·기획재정부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함께하는 '유엔조달시장 진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영양강화립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선정한 뒤 WFP 식품기술 전문가를 초청해 생산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유엔 식품공급자 등록을 위한 '세계영양개선연합 인증'을 국내 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 중인 전 세계 기아 퇴치에 동참한 배우 문소리씨. /WFP 홈페이지 캡처

업 최초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이달 4일 젤텍이 영양강화립 공급자로 선정돼 국내에선 최초로 2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유엔 식품조달시장에 진출했다.

국산 영양강화립 201톤(t)은 10월 방글라데시로 출항하는 원조쌀 2만t과 함께 현지 난민·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t 식량원조와 영양강화립 첫 지원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정경석 국제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량원조사업이 국내 농식품 산업 성장과 연계되는 내실화된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양강화립 뿐 아니라 영양강화 비스킷, 슈퍼시리얼 등 다양한 품목으로 우리 농식품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했다.

조달청의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성과는 범정부적 협력과 기업의 도전의지가 어우러져 높은 유엔 식품조달시장의 문턱을 넘어선 첫 사례"라며 "기술 개발부터 조달 절차까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WFP를 통해 식량위기국에 매년 쌀을 원조해 왔다. 7년간 연간 300만~800만 명의 식량위기 인구를 지원했다.

우리 쌀은 품질이 높고 조리가 쉬워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각국에서 난민·취약계층·학교급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또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불안정한 사회·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매년 현지 도착을 적시에 이뤄 내 식량위기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고용부, 임금체불 등 297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 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후배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남부발전, 하반기 신입·별정직 94명 채용

탈락자 대상 전형 결과 피드백 제공

한국남부발전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94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81명, 고졸 10명, 별정직 3명이다. 지원서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나이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장애인·보훈 대상자 채용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행하고, 직업체고 출신 우수 인재를 위한 고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도 2년 연속 이어간다.

특히 남부발전은 '보듬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형 탈락자에게 단계별 평가 결과와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향후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열린 채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상반기 94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통해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부발전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 주도’ 제3자 결제 보안 국제표준 제정

산업부·금융결제원, ISO 표준 제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정보보호 지침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 표준원과 금융결제원은 2022년 8월 ISO 금융서비스 국제표준화위원회(ISO/TC 68)에 표준안을 제출했고, 3년간의 국제 논의를 거쳐 ISO 18960 표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3자 결제서비스는 고객 계좌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모바일·온라인 결제, 조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대표적이다. 이번 표준은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서 설치·운영·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의 정보보호 지침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고객 개인정보 관리, 관리자 접근 통제, 보안구역 출입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 보안 관리 등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국제표준 발간으로 국내 기업이 국제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활용가능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기후변화 징후 뚜렷

개구리 산란 빨라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림·무인도서에서 장기간 생물계절을 관찰한 결과, 개구리와 새 등의 산란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생물계절이란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동식물이 나타내는 현상의 시간적 변화를 말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큰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15년간 관찰한 결과 18일가량 앞당겨졌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흥도의 꿩이갈매기 역시 산란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졌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신갈나무의 잎이 나무에 매달린 착엽 기간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평균 152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48일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생물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빅데이터로 산재 예방 돌입

안전보건공단, 고위험 현장 집중 관리
추락·끼임·질식·외국인 등 레드 지정
산재 취약 업종 단기 집중 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단기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00개 사업장을 '레드(RED) 2000'으로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예방 활동을 집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 사업장은 공단이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 고용 관련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 곳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 관리 기간 동안 5대 핵심 위험요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은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

장, 끼임 사고는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질식 위험은 하수·폐수 처리 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고용되거나 증가한 사업장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단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표적화된 점검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0~1의 수치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단기간 내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AI·빅데이터 기반 고위험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에센 융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2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3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4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5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6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7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8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9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0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1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12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13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14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광주시, 6000억 투입 ‘AI중심 도시’로 키운다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

디지털 기반 ‘AI공원놀이터’ 조성
행정·상담·민원 등 24시간 운영
인공지능 중심 맞춤형 헬스케어 도입

광주시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AI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11일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도약비전을 제시하는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기반의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AI공원놀이터’가 조성되고 이동시간단축·대중교통 최적화가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상담·민원 등은 인공지능 민원비서가 도입돼 24시간 운영되며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토론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플랫폼’도 도입한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바람개비를 들어보이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등이 일상 생활에 활용되며 문화·여가·도 추천한다.

인공지능 안전 보안관을 도입해 범죄 예방·재난 대응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도시로 바꾸기 위해 반도체·AI 분야 21개 기업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광주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해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광주가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로 보고 시민 퍼포먼스를 통해 유치를 요구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총 2조5000억원 규모이며 광주는 이미 국가AI데이터센터를 갖추고 있어 최적지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AI데이터센터·기업·인재의 3대 생태계를 동시에 갖춰왔다”며 “선포식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인공지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추진하고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인프라·인재·기업이 집적된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광주는 이번에 확보한 6000억원 예산으로 ‘모두의 AI’를 실현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을 바꾸고, 산업을 바꿔내겠다. 광주의 AI는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시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향해 가는 길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이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그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1000개의 기업이 광주에 오는 일이고 1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광주에 생기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광주의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익산시

18일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전북 익산시는 가을밤 특별한 오싹함을 선사할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축제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호러 콘텐츠를 결합한 이색 행사다. 18~21일과 26~28일 두차례로 나눠 총 7일간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미스터리 연구소, 끝나지 않은 실험’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중단된 비밀 실험이 어둠 속 교도소 세트장에서 되살아난다. 관람객은 몰입형 공포 체험을 통해 실험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익산(전북)=양수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1일 포항국제전시장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포항시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과 ‘안전한 일터, 안전한 포항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돼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았다. 시 발주 사업장에는 8명이 2인 1조로 상시 점검을 나서고 있으며,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도 4명의 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안전 컨설팅과 예방 활동을 펼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장성군

손자녀 돌봄어르신 수당 지원

장성군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필수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담양군

26~28일 샤인머스켓 축제

담양군이 푸른 포도 샤인머스켓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증암천 생태공원 일원에서 ‘푸른빛 포도로 여는 고서의 전설’을 슬로건으로 제13회 고서포도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고서 포도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경북 ‘산업AI 솔루션’ 국비 21억 확보

산업부 실증·확산 지원사업 선정 ‘앵커 컨소시엄’ 산·학·연 협력체계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과제는 산업AI 표준 서비스체계 구축, 현장 실증 및 적용, 산업 확산 전략 수립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통 난제인 인력난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서울대,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피엔티·아이에스에코솔루션·아바코 등 이차전지 핵심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앵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산·

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앞으로 9개월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표준 AI 무인화·무재해 솔루션 설계 ▲앵커 컨소시엄 실증 및 적용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로드맵 구축 등 AI 기반 통합 솔루션을 도입·실증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산업은 성장 둔화, 수도권 중심 연구개발 편중,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조업은 저성장·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기업의 AI 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과 창출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이차전지뿐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금리단길 상가 매출 2년새 65% 급증

경주시, 테마거리 조성 등 결실

경주 금리단길이 유동인구와 매출의 동반 증가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이 순항하면서 금리단길이 지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리단길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2022년 1만 5,063명에서 지난해 2만 6,732명으로 77% 늘었다. 같은 기간 상가 매출도 579억 원에서 957억 원으로 65% 증가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테마거리 조성, 문화행사, 빈 점포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동인구 감소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적막했던 중심상가도 ‘테마거리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경주를 상징하는 별 ‘개양성’ 조형물과 먹거리·맛을 표현한 설치물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행사도 활력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9월 열린 ‘황금카니발’은 사흘간 15만 명을 모으며 젊음이 넘치는 거리를 연출했고, 올해 5월 매주 금·토요일 열린 ‘불금예찬 야시장’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신라문화제와 봉황대 뮤직스퀘어의 연계도 체류시간과 소비 확대 효과를 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울진군, 오션리조트 민자 공모 최종선정

울진군(손병복 군수)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최근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심사를 마무리하고 우수제안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호텔 운영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검토한 뒤, 해당 컨소시엄을 우수제안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공모에 참여할 경우 평가점수의 3% 가산 혜택을 받게 된다.

울진군은 오는 9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 대상지는 근남면 산포리 18만㎡와 매화

면 오산리 134만㎡ 등 두 지역으로, 총 면적은 약 152만㎡에 이른다.

해당 부지에는 관광진흥법 상 기준에 따라 최소 3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민자로 개발하게 된다. 필수시설 외에 상업시설, 체험시설 등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획과 배치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울진을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 체류 위주였던 기존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시, ‘OK 웃맨 배구단’ 21일 출정식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부산시는 오는 21일 OK저축은행 웃맨 프로 배구단의 ‘2025~26시즌 출정식’을 연다. 이번 출정식은 지난 7월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이후 OK 웃맨 배구단이 부산 시민에게 인사하는 첫 공식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윤 구단주를 비롯해 선수단, 배구팬, 시민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출정식은 총 3부로 나뉘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제공할 예정이며, 상대 팀은 추후 공개된다. 이어 2부는 공식 출정식으로 박형준 시장의 축사와 최윤 구단주의 답사, 새 유니폼 공개, 선수단 각오 발표 등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1부에서는 새 시즌을 앞두고 OK 웃맨 배구단 사전 이벤트매치를 열어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콜마, 경영권분쟁 26일 첫 표대결 운동한 “구 상현, 이사회진입 안돼”

콜마비엔에이치 임시주총 핵심
사내이사 윤상현·이승화 선임건

운동한, 안건 가처분신청 소송
안건 결의시 효력정지 수단 마련

창업주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독점 경영’을 주장하며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14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총은 사내이사 윤상현 신규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승화 신규 선임의 건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뤄 찬반을 가르는 표 대결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운동한 회장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안건에 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안건들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해 신규 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로,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주총 안건은 보통 결의방법인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

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위배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위 안건들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도 구함으로써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윤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든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법적 절차를 밟으며 실리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콜마비엔에이치 주주 현황은 콜마홀딩스가 44.63%를 보유해 최대 주주이고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7.78%, 한국원자력연구원 6.05%, 운동한 회장 1.11%, 윤여원 대표의 두 아들 이민석·영석 각각 0.01%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임시 주총 소집과 안건 상정은 모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추진해 왔다.

윤 부회장은 콜마그룹 핵심 경영진으로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전반에서 ‘경영쇄신’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인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 운영을 맡고 있다. 콜마홀딩스 자회사 오가노이드 기반 생명공학기업 넥스트앤바이오, 한국콜마 자회사인 전문의약품 기업 HK이노엔 등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로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현재 상황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 도전에도 나선 것으로, 향후 윤 부회장은 콜마그룹 내 총 8곳에서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2018년 14곳에 달하는 겸직으로 한국콜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선 윤 부회장의 추가 겸직은 기업체 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충실하게 의무를 다한다는 데 중점을 둔 국내외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명공학 등은 각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규제 대응, 생산 능력 확충, 신규 고객사 유치 등 고도의 몰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경영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기관, 고객사, 주주, 임직원 사이에서 상충되는 이해 관계가 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겸직과 이해상충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가치에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장(왼쪽 세번째)과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의 모습. /GS리테일

GS리테일,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돕는다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 체결

GS리테일이 농협경제지주와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일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S리테일은 농협안심한우 등 국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G

S25, GS더프레시 등 전국 1만800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양 사는 공동 상품 기획에도 나선다. GS25는 추석을 앞두고 7만원대부터 14만원대까지의 농협안심한우·한돈 선물 세트 4종을 내놔다. GS더프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명절 기간 농협안심한우 론칭 특별 행사를 준비 중이다.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비즈니스 유닛)장은 “농협과 협력해 우수한 국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며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면세점, 中 단체관광객 모시기 나서

‘무비자 정책’ 앞두고 中 현장 방문
여행사 30여곳 만나 유치방안 논의

롯데면세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남궁표 마케팅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국경절 연휴와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 시행을 앞두고 직접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주요 여행사 30여 곳과 만나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저우 CITS 여행사, 칭다오여유그룹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 2·3선 도시 관광객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추진됐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칭다오, 항저우 등 2·3선 도시 단체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증가했으며, 구매 품목도 기념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롯데면세점은 국내에서도 관광객 맞이를 준비한다. 이달 18일에는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관광통역사 200여 명을 초청해 혜택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

롯데면세점 남궁표 마케팅부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경절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 장기화 조짐

법원, 인하 강제조정안 제시에
인천공항 “수용 안해”입장 고수
소송·위약금 지불, 철수 가능성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7%,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이에 따라 양측 임대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의 이용객당 임대료 단가를 기존 입찰가액에서 27% 낮추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통보했다. 이달 5일 신라면세점에 25% 인하 조정안을 제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세계(9020원)와 신라(8987원)의 객당 임대료

는 각각 6500원대와 6700원대로 낮아진다. 현재 임대료는 4기 면세 사업자 입찰 당시 결정된 것으로, 공항 여객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여객수연동 방식이다. 코로나19 시기 출국자수가 감소했음에도 고정 임대료로 임대료가 부과되자 변경됐다.

법원의 조정안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정안 자체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인천공항 측이 즉각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계약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은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첫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정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인천공항이 2주 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양측 갈등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매달 수십억 원 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면세점 입장에선 장기 소송전 자체가 큰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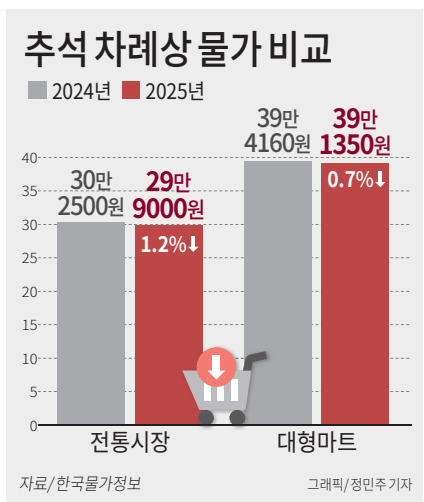
/손종욱 기자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 ‘29만9000원’

2년 연속 하락… 4년만에 20만원대
대형마트 39만1350원 0.7%p 내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하락하며 전통시장 기준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전문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9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00원(1.2%) 줄었고, 대형마트는 39만 1350원으로 2810원(0.7%) 낮아졌다. 전통시장의 경우 2021년 27만 원대에서 2022년과 2023년 30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9만 원대로 내려오며 4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안정된 반면, 축·수산물과 쌀·가공식품은 상승했다.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류는 지난해에 이어 사과·배 착황이 양호했고,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

도 높았다.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추석이 늦어 다양한 품종이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샤인머스켓과 단감 등 선물용 과일도 출하량이 늘어 공급이 원활하다.

채소류 역시 초여름 폭우·폭염으로 한때 가격이 뛰었지만,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고 생육이 회복되며 공급이 늘었다. 작업량 증가로 출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달리 가격이 크게 안정됐다.

반대로 축산물은 여름 폭염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되며 관리비용이 늘고 일부 폐사가 발생해 가격이 올랐다. 수산물도 해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고 환율·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수입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990원 최저가 PB 시리얼바 출시

CU가 이달 990원짜리 업계 최저가 PB 시리얼바 2종(오리지널, 초코맛)을 내놓고 PBICK 초저가 라인업을 전격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CU는 최근 자사 신규 마스터 PB인 PBICK(피빅)의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 속에서 고객

의 눈높이에 맞춘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CU는 스낵류를 필두로 HMR, 육가공류, 음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90여 종이 넘는 PBICK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CU는 고객 반응도가 높은 스낵류 중 최근 시리얼바의 매

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PBICK 신규 라인업으로 시리얼바 PB를 기획했다.

실제 CU의 시리얼바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간 시리얼바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22년 36.5%, 2023년 22.4%, 2024년 15.6%에 이어 올해(1~8월) 역시 19.8%의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신원선 기자

매장을 전시·예술공간으로… 유통업체, ‘아트테인먼트’ 열풍

차별화 경험 통해 소비자 공략
롯데마트 국제 아트페어 개최
신세계免税 유영국 화백 특별전
GS25 엔믹스 미니 4집 완판

백화점을 넘어 면세점, 대형마트까지 유통업체가 미술관으로 변신하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에 대항해 오프라인만의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술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2030세대를 겨냥한 ‘아트테인먼트’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젊은 층의 수요를 직접 공략한 가장 파격적인 시도는 대형마트에서 나왔다. 롯데마트는 송파점 매장 한복판에 상설 미술품매장 ‘mART센터(엠아트센터)’를 열고 국제 아트페어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오후 롯데마트 송파점 2층에 위치한 mART센터는 작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전시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전시관엔 장을 보고 휴식을 취하러 온 사람들이 구경하며 그림을 둘러보고 있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유영국 화백 특별전을 열고, 자체 캐릭터인 ‘폴 앤바니’와 협업한 작품도 선보였다. K-



롯데마트 송파점에 위치한 mART센터에 그림과 작품이 전시된 모습

/손종욱 기자

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자 하는 전략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을 통해 유영국, 박서보 화백 등 한국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미술의 깊이를 전달하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콘텐츠도 상영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면세점”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은 K-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편의점들은 동대문과 성수 등 관광객이 많은 매장에 아이돌 음반을 함께 선보였다. 매장이 특정 팬덤에게는 반드시 들러야 할 성지로 재탄생해, 이들의 자발적인 방문과 SNS 인증을 이끌어냈다. GS25는 지난 3월 성수에서 엔믹스 미니 4집 5000장을 완판했다. CU는 아이돌 앨범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기간 매출이 판매하지 않았던 기간 대비 약 37%가량 상승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26일까지 대구 신세계 8층에서 ‘추상유화: 두 개의 리



신세계면세점 유영국 화백 특별전.

/신세계면세점

듬’ 전시를 연다. 유주희 작가는 회화와 함께 함석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김겨울 작가는 캔버스 작업과 함께 드로잉을 소개한다. 신작을 포함해 총 39점을 선보인다.

이처럼 유통업체가 전시 등 예술품에 힘쓰는 건 2030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이 예술계 주요 소비층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비싼 갤러리 대신 친숙한 마트에서 예술을 즐기게 함으로써, 잠재력이 큰 젊은 세대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고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계산이다.

지난해 미술시장 매출액은 약 1127억원

으로 3242억원을 기록했던 2021년 대비 65% 감소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의 2030 관람객 비중은 66%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VIP 큰손 중심의 시장이 위축된 사이, 미술을 향유하며 미술관과 전시회를 방문하는 2030이 강력한 소비 주체로 떠올랐다. 유통업체는 이들을 흡수할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선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작품 전시를 무료로 운영해 방문 계기를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집객 효과와 매장 내 체류 시간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LG생활건강-미메틱스, ‘바늘 없는 뷰티 시장’ 공략

비침습적 음압 패치 적극 도입
“뷰티 패러다임 전환점 마련할 것”

LG생활건강은 지난 1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동·식물 기능 모사 스타트업 ‘미메틱스’와 공동연구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메틱스는 생체 모사 연구기업으로 문어, 개구리, 달팽이 등 생물의 기능을 연구해 제품을 개발한다.

특히 점착력이 강한 문어 빨판 구조를 활용한 ‘비침습적 음압 패치’를 보유하고 있다. 유효 성분을 피부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피부의 화장품 흡수력은 일반 화장품 대비 5~6배, 기존 마이크로 니들 제품 대비 2~3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



지난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LG생활건강X미메틱스’ 업무협약식에서 박형기 미메틱스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LG생활건강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핵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처, ACS 나노 등에도 게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메틱스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성균관대학교 방장현 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체 모사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미메틱스의 비침습적 음압 패치를 적극 도입해 ‘바늘 없는 뷰

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안전하게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LG생활건강이 독자 개발한 펩타이드 성분 톡실린, 신소재 성분 PDRN 등을 접목한 신제품을 오는 2026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또 양사는 공동 연구에 이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함께 진행한다.

LG생활건강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소비자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스칸케어 솔루션으로 뷰티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기 미메틱스 대표는 “LG생활건강과 협력해 혁신 제품으로 K뷰티의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자음생크림 효능, 직접 경험해보세요”

아모레퍼시픽 ‘시크릿 하우스’ 운영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까지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자음생크림 팝업 ‘시크릿 하우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인삼의 힘으로 완성한 피부 장수의 비밀’을 주제로 꾸며졌다. 특히 설화수 대표 상품인 ‘자음생크림’의 효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5가지 공간이 마련됐다. 인삼 정원, 비밀 연구실 등에서 인삼을 비롯한 핵심 원료를 오감

으로 체험 가능하다. ‘피부 자생력’에 중점을 둔 설화수만의 인삼 과학과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다.

설화수 브랜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60년간 이어오고 있는 인삼 과학 연구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설화수만의 피부 장수 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을 시작으로 롯데 인천, 롯데 잠실, 신세계 대구 등 주요 백화점 매장에서 ‘시크릿 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교촌-롯데JTB, ‘K-치킨’ 세계화 맞손

외국인 고객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11일 롯데JTB와 외국인 고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교촌1991스쿨’ 운영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향후 3년간 K-치킨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촌1991스

쿨’을 본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첫 일정은 9월 24일 인천 청라호수공원점에서 열리며 이어 10월에는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송중화 교촌에프앤비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대상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한국 외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며 “롯데JTB와 협력해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교촌의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미사이언스 ‘오늘은 예감 좋은날’ 운영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경기 동탄에 위치한 한미약품 R&D센터에서 ‘오늘은 예(술)감(상) 좋은날’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미사이언스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한미그룹 내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R&D센터에서 처음 열려 최인영 R&D센터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MTM’이 클래식, 상송 등 10곡을 연주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각 곡마다 관중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한미 연구원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HLB생활건강 ‘미인실록’ 래디언스 랩핑 마스크

HLB생활건강은 화장품 브랜드 ‘미인실록’에서 신개념 건식 마스크인 ‘래디언스 랩핑 마스크’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크림 에센스를 함유한 내부 시트와 보습한 외부 시트가 결합된 특수 원단으로 제작됐다. 에센스가 흘러내리거나 묻어내는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 얼굴 굴곡과 주름진 부위에도 밀착되도록 설계해 리프팅 효과까지 더했다.

HLB생활건강이 독자적인 기술로 추출한 자연 발효 마백 성분인 ‘썰지게미수’와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나무수 등을 배합한 것도 특징이다. 피부 톤과 안색을 개선해 주고 기미, 잡티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계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시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t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계플랫폼 (Kelt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aT, 비엔나서 ‘韓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9~10일 비엔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지 외식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간의 모든 조리 시연은 한식당 모던코리아의 김도훈 조리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aT



LG생활건강, 강릉 가뭄에 ‘울림워터’ 30만병 지원

LG생활건강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에 고급 먹는 샘물 ‘ViO워터TM 울림워터 450mL’ 30만병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1차 지원분으로 13만 1520병을 배수했고 오는 22일에는 2차 지원분 16만 8480병을 추가 기부한다.

/LG생활건강



KB국민은행, ‘K-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열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2025 K-비즈니스(Business)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Co-Evolution : AI와 함께 진화하는 기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우수 중소·중견 기업 CEO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을 포함한 경영진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美 관세대우 ‘상생협력 수출금융 지원’

하나은행이 HL그룹,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미국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 대상 ‘상생 협력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부음

▲장곤식씨 별세, 임채호(경기도의회 사무처장)씨 장모상=14일 안양장례식장 VIP실(지하 1층), 발인 16일,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031-456-5555.

“금융 가교 넘어 실질적 혜택 주는 협력의 초석되길”

한-필 금융협력 포럼

韓 기업감사·현지 관계자 등 한자리 필리핀, 연평균 4.67% 경제 성장률

“韓, 필리핀의 소중한 경제 파트너 금융부문 협력 더 확대할 준비 돼”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필리핀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리핀은 물 위를 뛰어오르는 돌고래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필리핀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우정은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면서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결실을 보고, 이번 포럼 자리가 양국 간의 화해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67%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1995년 837억 달러였던 경제 규모는 2024년 4616억 달러로 5.5배 이상 커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1224달러에서 4078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이 11~13일 필리핀 마닐라 SEDA호텔에서 한국과 필리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이정희 메트로미디어 전무,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운리위원장, 박만환 제일엔지니어링 고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올해도 1분기 5.4%, 2분기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아세안5(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의 현지 투자와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 기반이다. 1억1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됐고, 해외 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액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다. 인프

라 금융, 무역 촉진, 디지털 금융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금융 부문 간 교류 역할을 통해 이번 포럼을 넘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흐름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한국 금융 부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Eufrocino M. Bernabe, Jr)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마련한 중기 재정 프로그램은 견실한 재정 및 경제 기반을 다져 더 빠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촉진형 재정 통합 전략으로 필리핀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

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2028년까지 800만명의 빈곤 탈출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안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경제 자유화, 자본시장 강화, 수자원 개발 현대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멀리 뻗어나가며, 더 높이 비상하자”고 했다.

필리핀의 성장을 이끈 각종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투자 뒤에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있었다. 2021년 CREATE 법을 제정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복잡한 인센티브 체계와 행정 절차 지연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24년 CREATE MORE 법을 새로 제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지방세 최대 2% 고정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특수비자 제도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에 더해 다양한 행정 및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지원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임직원 파견 스마트폰·태블릿 점검 재능나눔 생필품 후원, 기술자 양성 지원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편의와 진로 탐색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3일 창원시와 굿네이버스 경남도자립지원단담기관 주관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무상 점검하며 재능 나눔을 실천했고, 희망디딤돌 경남센터에는 이불 등 생필품도 후원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해당 행사에는 경남 도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청년들이 기술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삼성희망디딤돌 ‘공조냉동기술자양성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삼성희망디딤돌은 주거, 직무 교육, 취업을 지원하는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9월 대전 종합기술교육장에서 교육생 대상 현장 견학과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가스 용접 실습 및 노하우 습득 ▲



삼성전자서비스 중환 기술교육장에서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산업 안전 체험 교육 ▲스마트가전 IoT 연동 실습 ▲냉난방시설 및 공조기기 설치·점검·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 특강 등에 참여해 자격증 취득과 향후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23년 구미센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전국 희망디딤돌센터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희망디딤돌센터에서는 가전제품 점검 및 세척, 자립준비청년 스마트폰 수리,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24회, 올해는 21회에 걸쳐 제품 점검과 물품 후원을 진행해온 바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애경산업, 추석 맞아 현금 조기지급 결정

협력사 67곳에 82억 납품대금 지급

애경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에 대해 ‘현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자사와 거래하는 67개 협력사에 82억원 수준의 납품대금을 당초보다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22년 설 명절부터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석까지 누적으로 총 730억원을 조기 지급하게 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하며 상생과 동반 성장은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쓰오일, ‘韓 공공PR대상’ 우수상 수상

업사이클링 ‘굿러브스 캠페인’

에쓰오일(S-OIL)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민간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셀프주유소에서 사용 후 버려지던 일회용 비닐장갑을 다회용 주유장갑으로 업사이클링한 ‘굿러브스(GoodLOVE S) 캠페인’이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시작된 굿러브스 캠페인은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연리동주유소에서 수거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내구성이 높은 원단으로 재가공해 셀



에쓰오일 공공PR대상 우수상 GoodLOVES 캠페인 영상 장면. /에쓰오일

프주유에 적합한 다회용 장갑으로 제작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보관과 우치를 함께 제공해 자원 선순환의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영상과 사진 이벤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비닐장갑남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원관희 기자 wkh@

PURSOL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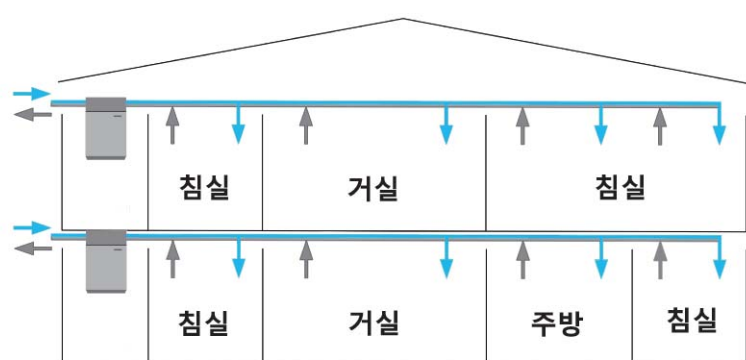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는 약관이 아니다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부동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갑 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신탁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사안이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에서 갑 회사는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계약이후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갑 회사는 신탁회사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공매공고문과 매매계약을 근거로 해, 갑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

했다. 그러자 갑 회사는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탁회사의 위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갑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특약사항은 해당 신탁회사의 모든 공매 공고문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개별 공매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물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됐던 것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위 특약사항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과 매매계약서가 반복 활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부동산에 한정해 공매절차에서

낙찰자를 정해 그와 일회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고, 신탁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갑 회사는 계약금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계약금 전액 몰취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480억원으로 계약금도 48억원이라는 거액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이 갑 회사의 잔금 대출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근거로 48억원의 계약금 중 40%를 감액했다.

이 판결은 공매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한 공매절차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불확실성 커진 한·미 조선 협력



기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한미 협력에 금이 가면서 마스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취업비자 발급에 엄격한 미국의 비자 정책이 미봉책으로 일을 처리한 국내 기업들의 문제를 1차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 나아가 수급소원대 일방향 투자와 첨단 제조시설 설립에 나선 우리 기업의 전문인력들을 그 어떤 여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감금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미 투자협력 사업을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현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할 숙련 인력 확보가 늦어지고 단기 일정 차질뿐 아니라 장기적인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비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기에 당분간 한미 당국의 협의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내 노사 갈등도 마스가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뒤 노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단협이 미타결된 상황에서 회사가 HD현대미포와의 합병, 싱가포르 투자 전문 계열사 설립 등 굵직한 경영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협상은 경색됐다. 더구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 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불안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노조는 전향적인 협상안이나 올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분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비자 규제와 국내 노사 갈등이 조선업계가 동시에 풀어야 할 이중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향한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 전략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노사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 역시 비자 제도의 현실적 개선과 외교적 지원을 병행해 기업들이 현지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두 가지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5일 (음 7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이 저승보다 비할 바 없다. 48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재혼에 도전. 60년생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 72년생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준비를. 84년생 과거의 사랑이 아름답다 해도 이미 지나간 일.



37년생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 신중히. 49년생 약간의 먹구름 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61년생 장기투자는 신중히 고려. 73년생 직장 다니면서도 교육투자는 계속. 85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38년생 자식에게 주기보다는 주택연금을 생각해보자. 50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편 보기 좋은 날. 62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74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86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39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51년생 투자에는 어느 분야든 인내가 따라야 할 것. 63년생 해결의 기마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75년생 지나간 인연에 연연한다고 다시 돌아오겠는가. 87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40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4년생 뜻밖의 선물로 즐겁다. 76년생 저축한 돈으로 차보다는 집살 것을 계획하는 것이. 88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4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53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간다. 65년생 꿈을 이룰 계기가 온다. 77년생 무겁게 잠긴 문도 작은 열쇠 하나면 쉽게 열리니 문제해결책은 있다. 89년생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42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54년생 투자에서 묘수를 찾지 말고 인내심으로 항방을. 66년생 가뭄에 비 오듯이 순식간에 해결. 78년생 버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90년생 이사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43년생 남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자녀에게 소통시키도록. 55년생 비밀 언덕이 필요하다. 67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9년생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해보자. 91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44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56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다. 68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야. 80년생 어디를 가든 대립관계를 만들지 말고 실리적으로 중재를. 92년생 당신의 발등을 찍는 것은 당신의 도끼.



45년생 금리가 높으니 생활비가 적어져도 단기투자는 아니다. 57년생 불행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곁잡을 수 없이 커진다. 69년생 거레를 잘 살펴야 한다. 81년생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라. 93년생 매매 수가 있으니 오후에 이루어진다.



46년생 중도 포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 58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7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으니 마음을 접어라. 82년생 친구 개입 집에 즐겁게 갈 일. 94년생 저축이 노후의 보함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47년생 사랑이 평생 없는 것도 자신 탓. 59년생 문화센터에 가서 한문 쓰는 공부를 해본다. 71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다시 도전해보자. 83년생 내일이 오느라 발전되도록 공부해야. 95년생 가가호호 근심과 가난이 없어지면 좋겠다.



김상회의四季

손자병법은 언제나 옳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고금의 전략은 손자병법 모공편(謀功編)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제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 백 번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문은 '백전불태(百戰不殆)'로서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백전불태는 무조건 이긴다는 의미보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에 더 방점을 찍으면서 사람과 물자가 살상되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선으로 여긴다. 그러니 가장 하수는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인명의 살상이나 재물의 파손 등 피해를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니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얻는 승리를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이야말로 손자병법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고전의 시대인 춘추전국시대에만 통하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는 데서 손자의 탁월한 식견을 알 수가 있다. 우월한 무기와 백병전이 대세였던 과거도 그러했거니와 첨단무기와 기술이 대세인 현대도 다를 것이 없다. 얼마 전 휴전을 한 이스라엘과 이란전역시 승리는 치밀하게 상대방의 전력과 위치 등을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한 이스라엘이 승자였다. 지피지기 전략이었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해야 한다. 무력투쟁은 최후 수단이다. 전쟁은 발발하게 되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 죽거나 다친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 파멸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물질이라도 생명과 교환할 수 없으니 협상과 타협의 묘를 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을 훨씬 넘겼다. 트럼프와 푸틴의 최근의 만남은 기대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턱과 턱이 만나는 게 전쟁보다 낫다"고 한 윈스턴 처칠의 말은 손자병법과 통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1	2	6				
5		4	8	2				6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1	2	6				
5		4	8	2				6

9	1	2	8	2	8	7	6	9
6	7	8	9	9	2	1	2	8
2	6	9	7	8	1	9	2	8
9	9	1	7	6	8	8	2	1
1	8	2	8	2	9	6	9	7
8	8	7	6	1	9	2	9	2
8	2	6	9	9	8	2	7	1
2	9	8	2	8	7	9	1	6
7	9	1	2	6	2	8	8	9

인문계 중심 ‘사탐런’ 본격화… “입시 지형 변화 불가피”

2026학년도 수시

수험생들 합격 확률 최우선 고려
인문계, 경쟁구도 한층 치열해져
자연계, 사탐불허 대학 지원 감소

수험생들이 대학 합격 확률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택하면서 2026학년도 수시에 ‘사탐런(사회탐구 선택 쏠림)’이 본격화됐다. 그 여파로 인문계는 지원 열기가 커졌고, 자연계는 지원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 서울대·연세대가 자연계 사탐을 불허하고 고려대는 허용하면서, 인문계 쏠림과 자연계 이탈, 그리고 자연계 내부의 고려대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 지원자 추이〉

학교명	2025			2026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서울대	648	5,219	8.05	647	4,873	7.53
연세대	956	13,935	14.58	965	14,274	14.79
고려대	1,203	23,116	19.22	1,204	23,226	19.29
성균관대	745	23,548	31.61	931	32,187	34.57
서강대	524	13,435	25.64	539	15,441	28.65
한양대	793	23,204	29.26	796	22,748	28.58
중앙대	1,207	27,362	22.67	1,194	28,514	23.88
경희대	1,030	26,216	25.45	1,014	24,995	24.65
한국외대	1,043	22,124	21.21	1,044	22,818	21.86
이화여대	987	9,934	10.06	971	14,467	14.9

10개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 수는 인문계가 전년보다 1만5450명(8.2%) 증가한 반면, 자연계는 6705명(3.2%)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인문계는

20.59대1에서 21.87대1로 상승했으나, 자연계는 25.25대1에서 23.82대1로 떨어졌다.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도

/종로학원

인문계 지원자는 103명 늘어난 반면, 자연계 지원자는 3436명 줄었다. 경쟁률은 인문계가 15.06대1에서 15.05대1로 비슷했지만, 자연계는 16.57대1에서 15.36대1로 하락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 지원자가 346명 줄었지만, 연세대는 339명, 고려대는 110명이 각각 늘었다.

자연계에서는 서울대가 1455명, 연세대가 2402명 감소했으나 고려대는 421명 증가했다. 이는 고려대가 올해부터 자연계에서도 사탐 응시를 허용한 반면, 서울대·연세대는 불허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쟁률은 서울대가 8.12대1(전년 9.07대1), 연세대 15.10대1(16.39대1)로 하락한 반면, 고려대는 20.35대1로 소폭 상승했다.

수학 선택 과목에서도 확률과통계 응시자 비중이 전년 47.3%에서 57.1%로

크게 늘면서 순수 문과생도 증가, 인문계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졌다. 사탐 고득점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인문계가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연계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에다 사탐 불허 대학 지원자 감소가 겹치며 입시 환경이 불리해졌다. 특히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한 변별력이 될 전망이다. 대신 불이익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극복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사탐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인문계 지원자는 증가하고 자연계는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2027학년도에는 현행 수능체제 마지막 해인 만큼 사탐런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9일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 개최

40개국 70개 도시 300여명 집결
오세훈 시장, 주요정책 공유 예정

국내외 70여 개 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등 30여 개 기관의 300여 명이 케데헌이 쏘아올린 도시,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총회는 제15차 회의로 세계대도시협의회, 이른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행사이며, 2002년 제7차 총회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메트로폴리스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대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5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설립된 국제도시 네트워크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또는 수도인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65개국 163개 도시가 가입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시는 1987년에 가입해 2023년 제14차 브뤼셀 총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에는 의장인 모로코 라바트 시장을 비롯해 뉴욕, 부에노스 아이레스, 바르셀로나, 도쿄, 광저우, 요하네스

버그, 이스탄불 등 전 세계 40여 개국, 70여 개 도시의 시장단과 대표단이 참석한다. 또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모리기념재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을 포함한 30여 개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총회 첫날 개회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도시의 미래’라는 주제와 연계해 ‘서울이 준비하는 미래의 모습과 주요 정책’을 세계도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Jason Schenker)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The Futurist Institute) 의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참가한 각 도시들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대도시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행정·기업협력 등 전 분야 AI 도입

이동환 시장 ““AI 특례시” 도약”

고양시(시장 이동환·사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G-노믹스 5개년 계획’에서 ‘AI노믹스’를 선포한 이후, 행정과 민원 서비스, 인재 양성, 기업 협력 등 전 분야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AI는 모든 산업의 기본 조건”이라며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AI 특례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 창 의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눈에 띈다. 지난 6월 열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인 ‘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은 변리사 자문을 거쳐 시 명의로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AI 자동 추천 무인민원발급기 ▲AI 식품 이물 관리 시스템 등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 서비스도 고도화된다. 카카오톡



기반 생성형 AI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무휴 24시간 증명 발급, 세금납부, 복지·건강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히 대응 가능한 지능형 서비스로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내부 행정 효율화 역시 과제다. 시는 직원 수요를 반영해 법령·지침 검색, 문서 요약 및 초안 작성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비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협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롯데쇼핑과 ‘AI 기반 지역상생·스마트유통 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해 시민 우선 채용, AI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물류센터 내에는 시민 대상 AI 홍보관도 조성된다.

/고양(경)·안성기 기자 ask9900@

서울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

퇴직공무원 보조인력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퇴직공무원을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으로 투입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의 인솔 부담을 덜어준다. 경험 많은 공직자 출신을 활용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현

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은 교원, 소방, 경찰 등 교육 현장과 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 도보이동을 지도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안전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건비 예산 14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신설된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

해 보조인력을 각 학교와 연계한다. 학교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신청을 받고,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예비 인력도 확보해 학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 교사와 학생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런던 도심서 11만명의 극우파 반이민 시위… 반대파·경찰과 충돌
▲폴란드, 러시아 드론 위협에 예방 작전… 경계 고조

/사진 뉴시스

▲日 사도광산 추도식, 韓 없는 반쪽 행사… ‘강제성’ 표현 또 빠졌다
▲찰리크크 추모 논란… 84만 유튜버 해썬 “무지했다” 사과

▲금값 랠리 계속되면…금 1kg으로 일본에서 집산다
▲‘오스카 수상’ 팔레스타인 감독 “이스라엘이 서안 집 급습”



미래적금vs도약계좌
청년금융상품
선택 기로
08

metro®

Life

유통 매장
예술공간으로
아트테인먼트 열풍
L2



“제주 바다와 노을 품은 공간서 ‘나만의 시간’ 선물하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카페리나’ 손 휘 연 대표

제주의 서쪽 끝 고산 마을은 협재나 애월처럼 카페가 물려 있지 않다. 풍력 발전기가 늘어선 고산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해 질 무렵 바다와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면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이 한적한 풍경 속에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작은 공간이 있다. 바로 작은 카페 ‘카페리나’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손휘연 대표는 제주에 정착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 동행과 돌봄을 위해 제주를 오가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손대표는 생활 근거지를 제주로 옮겨야 했다. 손 대표는 “부모님이 제주로 내려오신 지 10년쯤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가 많아 서울 생활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집 근처 시골집을 임대, 여성 전용 숙소와 카페를 함께 열었다. 그는 “커피를 워낙 좋아했고 작업 공간을 겸할 수 있는 업종이어서 자격증 수업을 듣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와 거리가 먼 고산은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직접 발로 뛰며 메뉴와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르는 일부러 카페 동선을 잡는 작업까지 대부분 손 대표가 직접 계획했다.



카페리나에서 바라본 노을 모습.

◆반려묘 이름에서 시작된 카페리나

카페리나라는 이름은 고등학교 시절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첫 반려묘 ‘리나’의 이름을 따다. 손 대표는 “리나는 강아지처럼 애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울면 다가와 눈물을 핥아주던 다정한 고양이였다”며 “리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로 오기 직전 세상을 떠난 리나를 기리기 위해 간판에 이름을 새겼다.

지금 카페 안에는 ‘가운’과 ‘나온’이라는 두 마리 고양이가 함께한다. 그는 “사람을 경계해 잘 나오진 않지만, 운이 좋으면 창가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칠 수 있다”고 했다.

카페 내부는 나무 질감과 흰색을 중심으로 단정하게 꾸며졌다. 이전에는 소품샵으로 쓰이던 공간의 기본 틀만 살리고, 벽면 색상부터 테이블 간격, 조명 배치까지 세세한 부분은 손 대표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하나 상의하며 결정했다. 그는 카페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보다 오래 머물러도 편안해야 한다”고 판단해 어머니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가운데는 테이블 간격을 넉넉히 두어 여유가 느껴지고, 특히 창가 자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머물 수 있도록 가장 공을 들인 자리다. 창가에 앉으면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여행객과 장을 보러 가는 마을 어르신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손 대표는 “날이 맑으면 반짝이는 바다와 주변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한결 느리게 흐른다”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 잔을 두 손에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 여행의 진짜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이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고산 노을을 담은 시그니처 메뉴

카페리나의 대표 메뉴는 ‘고산노을’이다. 라즈베리 시럽과 한라봉청을 층으로 쌓아 보라색·노란색·붉은색이 유리컵 속에서 서서히 번지도록 만들었다. 손 대표는 “고산의 노을은 제주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라 그 색을 담고 싶었다”며 “농도와 색감을 맞추기 위해 수십 번 실패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색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도 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일 농축액 비율을 수십 차례 조절했고, 제주산 과일을 사용하기 위해 제철마다 공급처를 직접 확인한다.

디저트 ‘삼색고양이쿠키’도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쿠키 위 고양이 표정은 식용 잉크로 하나하나 직접 그려 넣는다. “손님들이 유리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그



손휘연 카페리나 대표와 카페리나 내부 모습. 제주 서쪽 끝 고산마을, 관광지과 거리가 먼 한적한 곳에 문을 연 카페리나는 인테리어 자재 선택부터 테이블 배치와 동선 설계까지 손휘연 대표가 직접 계획하며 만든 공간이다.

“

부모님 부양 위해 제주로 거쳐 옮겨 고산 시골집 개조해 카페·숙소 오픈

인테리어 자재, 동선까지 직접 설계 제주바다·노을 한눈에 보이는 창가도

고산 풍경 담은 시그니처 메뉴 개발 등 신선한 재료로 카페만의 특색 살려

화려하진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 조성 지친 일상 속 떠올리게 되는 공간 되길

의 설명이다.

외진 곳에 위치해 성수기에도 북적이지 않지만, 그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원두나 과일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맛에서 티가 난다”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걸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의 고집은 손님을 다시 불러온다. 1년 전 자전거 여행 중 마셨던 한라봉에이드를 잊지 못해 가족을 데리고 다시 찾은 손님,

한 달 살이를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온 단골이 그 증거다. 손 대표는 “단골 손님이 ‘작년에 너무 맛있어서 가족을 데리고 왔다’고 말할 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손님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메뉴 변화를 확인하러 찾기도 한다.

◆고산의 계절이 주는 가치

손 대표는 제주 서쪽 끝 고산의 가을을 특히 추천한다. “10월과 11월에는 억새가 흐드러지고 바람이 선선하며 하늘이 높아진다”며 “여름 성수기가 끝난 뒤 관광객이 빠진 해안도로에서 느끼는 바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설명이다.

카페를 나서면 곧바로 고산 해안도로의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고, 조금만 걸으면 수월봉·차귀도·용수리에서 탁트인 바다와 노을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모슬포로 향하는 해안도로에서 야생 돌고래 무리까지 볼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유명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오롯이 ‘나’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바람을 맞고 노을을 바라보며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일상에 지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뮤지컬 ‘라이프 오브 파이’, 韓 초연 앞두고 스틸컷 공개 /사진 뉴시스
▲‘수컷없이’ 암컷 도마뱀 혼자 낳은 알, 8마리 부화…학계 “희귀 사례”

▲국립한글박물관, 부산서 ‘근대한글연구소’ 순회전
▲‘강행→취소→재개’ 하루 만에 반복한 KOVO…코보컵, 개막부터 혼란 ↑

▲손흥민, 새너제이션 ‘52초’ 벼락골…MLS 2호 골 폭발
▲김하성, 마지막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애틀랜타는 4연패